

王冰의 『老子』이해에 관한 考察 - 『黃帝內經素問注』를 바탕으로

暎園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金度勳*

A Study on the Wang-bing's Comprehension of No-Ja(老子) in Hwangje-Naegyeongsomunju(黃帝內經素問注)

Departmen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Kyungwon University

Kim Do Hoon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Wang-bing's idea, which was influenced by Taoism and Hyeonhak(玄學), I investigated the quotations from the No-Ja in the Hwangje-Naegyeongsomunju, and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1. In the process of writing notes on the Hwangje-Naegyeongsomun, Wang-bing quoted No-Ja 19 times at 17 passages. Through this annotating process, he suggested the vision of the universe and the vision of the formation of all things. And he emphasized that abstaining from desire and satisfaction are essential for one's well being. In other words, he insisted on following the rules of EumYang(陰陽) and Fourseasons, to preserve Cheonjin(天真). 2. Wang-bing wanted to establish a systematic medical theory by revising the Hwangje-Naegyeongsomun. In the front part, where he mentioned contents of Jeonwongibon, he tried to search a way of well being, through taking care of one's health. And there his Taoistic idea becomes obvious. 3. The Hwangje-Naegyeongsomun was written under the influence of Hwangno(黃老) idea - the series of Taoism of Chunchu-Jeonguk(春秋戰國) era. Likewise Wang-bing's revision on the Hwangje-Naegyeongsomun was based on the Taoism of Dang dynasty, which succeeded to the WiJinHyeonhak(魏晉玄學). This shows a series of relationship. 4. It is no wonder that Wang-bing used quotation from scriptures of Taoism in his annotating work on the Hwangje-Naegyeongsomun. The fact that this quotations are mainly mentioned in the front part, also shows that he emphasized the theme of well being, by intention.

Key words : Wang-bing(王冰), Hyeonhak(玄學), No-Ja(老子), Hwangje-Naegyeong(黃帝內經)

서론

현재 『黃帝內經素問』의 기본 틀이 되는 텍스트는 주로 王冰이 편집한 것을 北宋 校正醫書局에서 교정한 新校正 판본이다. 王冰은 『素問』이 '세상에 떠도는 판본에 잘못된 곳이 많아 원뜻과 멀어지게 되었

* 교신처: 金度勳, 暎園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031-750-5422, chulian@kyungwon.ac.kr

다고 보아, 교정에 힘쓰고 새로 발견한 卷들을 합해 81편으로 만들어, 762년에 『黃帝內經素問注』 24권을 편찬 완성하였는데 세칭 『次注黃帝素問』, 『補注黃帝內經素問』이라고도 한다. 한편 新校正 판본은 『重光補注黃帝內經素問』이라고도 한다.

王冰(710-805)¹⁾은 불교의 영향이 컸고 도가사상이 유행하던 시기를 살았던 인물이다. 호는 啓玄子이며 太僕令의 관직을 역임하였으므로 王太僕이라고도 한다. 그는 당나라의 전성기인 '開元天寶'시대를 거치고, 아울러 玄宗의 실치와 安史의 난에 의해 혼란을 겪었던 당나라가 쇠퇴해 가는 시점에 계통적으로 완전한 최초의 『素問』이라고 할 수 있는 『黃帝內經素問』의 재편집을 완성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도가사상에 심취되어 양생법을 좋아하였고, 나이가 들면서 의학에 심취하여 황제내경을 발견하여 귀감으로 삼았다²⁾.

그가 도가사상에 빠져 든 것은 혼란스런 시대의 현실 앞에서 현실을 초월하여 개인의 안녕을 추구하는 풍조와 유관하다고 여겨지며, 이런 경향은 魏晉南北朝時代 세속을 벗어나 무위자연을 추구하던 清談思想이었다고도 보아진다. 그가 80평생 겪었던 몇 차례의 커다란 변화는 則天武后의 권력 장악, 中宗의 復位, 玄宗의 開元盛世, 安史의 亂으로 요약된다³⁾. 결국, 이러한 혼란 속에서 그는 魏晉 이래로 세속을 피해 『周易』, 『老子』, 『莊子』 등을 연구하여 儒家의 명칭과 道家의 자연을 융합하는 清高無爲의 논의를 전개해 나갔던 玄學思潮의 계보를 이었다고 볼 수 있다⁴⁾. 그리고, 이런 풍토에서 의학의 내용을 道家의

로, 玄學의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왕빙이 재편집을 하면서 토대로 삼았던 책은 先師張公의 秘本과 梁代 全元起 注本(『內經訓解』)이었으며, 주석작업을 펼치면서 인용한 서적은 40여 종에 이르는데⁵⁾, 『素問』, 『靈樞經』, 『鍼經』 등의 내경 원문을 통해 주석을 한 부분이 많고, 이어 『老子』가 17회 인용되었다고 나온다. 물론 인용을 밝히지 않고 『老子』를 인용한 부분도 있지만⁶⁾, 왕빙이 의도를 가지고 인용한 부분은 출전을 밝힌 것을 볼 때, 가장 많은 인용을 한 책이며 따라서 왕빙의 道家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老子』이외에 王冰이 인용한 道家계통의 서적은 『莊子』(1회), 『廣成子』(1회), 『慶桑楚』(5회) 및 河上公의 주석과 『眞誥』 등이 있다.

왕빙에 관한 국내 연구논문은 세 편 정도 발표되었으며, 中國의 경우에 중국학술정보원 검색(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에서 본 주제와 관련하여 8편 가량이 검색되었다. 다만 본 논문에서 주안점을 두고 다룬 왕빙의 인용문에 대한 주제는 발견하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玄學의 영향을 받은 왕빙의 주석을 살펴보는 일환으로, 우선 왕빙이 『黃帝內經素問』을 주석하는 과정에서 『黃帝內經』 원문 외에 가장 많이 인용한 『老子』의 인용문을 위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왕빙의 노자이해에 대해 살펴보고, 전체적 편제에서 어떤 중요도를 가지는지 분석해 본다.

본론

왕빙이 『老子』를 인용한 17곳은 그가 재편집한 『黃帝內經素問』의 전반부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

- 1) 張發本, 孫理軍. 王冰其人其事. 醫史文獻. 太原. 山西中醫學院學報. 2005. 6(2). pp. 1-2. 참조. 王冰의 생존연대에 대해서 최근 張發本은 舊唐書 韋抗傳을 근거로 外臺秘要를 저술한 王焘를 천거한 그가 711년 王冰을 "縣太尉"에 천거한 사실을 여러가지 예로 증명하고, 그 때 王冰이 20여 세였으리라 추측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762년 왕빙이 素問의 재편집을 완성한 것은 古稀가 넘은 때로 판단된다.
- 2)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5. 黃帝內經素問注 王冰序. "冰弱齡慕道, 夙好養生. 幸遇眞經, 式爲龜鏡."
- 3) 張發本, 孫理軍. 王冰其人其事. 醫史文獻. 太原. 山西中醫學院學報. 2005. 6(2). p. 2.
- 4) 廖育郡, 傅方, 鄭金生 著. 林炫局 外 2人 共譯. 中國科學技

術史醫學篇. 서울. 일출사. 2003. p. 372. 참조.

- 5) 金重漢. 王冰에 대한 研究-王冰의 素問에 對한 註釋 및 篇第의 改編을 中心으로.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1980. pp. 5-7. 왕빙이 소문주석에 인용한 서적과 인물 및 인용회수가 자세히 조사되어 있다.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진행된 조사는 오늘날 컴퓨터 검색에서도 별 차이가 없다.
- 6) 金南一. 王冰 素問註釋의 易學理論 활용에 관한 연구.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1994. p. 18. 주석이 그 예가 나온다.

는 그가 全元起本『黃帝內經』을 편집하면서, 원래 卷九에 들어있었던 부분을 養生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앞에서 제시한 편집의 의도를 말하는 것이다. 아래 왕빙이 『老子』를 인용해 주석을 단 『黃帝內經素問』의 원문부분과 주석부분을 편별로 제시하고, 번역과 왕빙이 주석을 달았던 단위별로 약간의 고찰을 첨가한다.⁷⁾

1. 「上古天真論 第一」

(1) 岐伯對曰：上古之人，其知道者，法於陰陽，和於術數。

岐伯이 대답하였다. “상고의 사람 그들은 道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陰陽을 법칙으로 본받고 陰陽을 실천하는 방법들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王冰注】

上古，謂玄古也。知道，謂知修養之道也。夫陰陽者，天地之常道。術數者，保生之大倫。故修養者，必謹先之。

『老子』曰：萬物，負陰而抱陽，沖氣以爲和。(42장)

「四氣調神大論」曰：陰陽四時者，萬物之終始，死生之本。逆之則災害生，從之則苛疾不起。是謂得道。此之謂也。

상고란 아득한 옛날을 말한다. 도를 안다는 것은 수양의 방법을 아는 것을 말한다. 陰陽이란 천지의 常道이다. 술수란 삶을 보전하는 큰 기틀이다. 그러므로 수양하는 자들은 반드시 조심하고 우선시하는 것이다.

『老子』에 이르기를, “만물은 陰을 등에 지고 陽을 안으며, 기를 부딪힘으로써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였다.

「四氣調神大論」에 이르기를, “陰陽과 四時は 만물

의 시작과 끝이며, 죽고 사는 근본이다. 이를 거스르면 재해가 발생하고, 이를 따르면 가혹한 질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도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按】

본 구절에서는 陰陽의 道를 아는 것과 관련하여 『老子』의 글을 인용하였다. 본 구절은 沖和를 강조하여, 음양의 기운이 교류되어 만물을 생성하는 음양적 우주론을 강조할 때 늘 등장하는 구절이다. 老子의 道는 萬物의 배후로 萬物을 생성하는 원리인데, 만물이 만물로 나타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되며, 이는 無에서 有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부단한 기의 교류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沖氣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河上公注에서는 만물은 모두 元氣가 있어야 조화를 이루고 부드러움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⁸⁾. 조화가 부드러움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王冰이 여기서 인용한 부분은 만물은 陰氣를 등지고 陽氣를 끌어안음으로써 陰陽의 상응을 이루고, 이를 통해 陰陽의 기운이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는 가운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조화된 힘을 형성할 수 있다는 陰陽의 대원칙을 설정한 것이다.

(2) 以妄爲常，醉以入房，以欲竭其精，以耗散其眞。

망령됨을 상도로 삼아, 취하였음에도 성행위를 하여, 욕정으로 자신의 精氣를 고갈시켜서 眞氣를 소모시켜 흩어버리려 합니다.

【王冰注】

寡於信也，過於色也。樂色曰欲，輕用曰耗。樂色不節，則精竭。輕用不止則眞散。是以聖人愛精重施，髓滿骨堅。

『老子』曰：弱其志，強其骨。(3장)

河上公曰：有欲者，亡身。「曲禮」曰：欲不可縱。

(新校正云：按甲乙經，耗作好。言輕用而縱欲也。)

7) 인용문의 추출은 電子版 四庫全書(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0.)검색으로 하였으며, 黃帝內經素問(王冰,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에 맞추어 표점을 달고, 글자가 다른 곳은 顧從德本에 의거 교정하였다. 원문과의 참고를 위해 對譯의 형태를 취했다. 해당하는 老子의 글은 밑줄로 구분하였다.

8) 河上公, 老子道德經河上公章句, 四十二章, 北京, 中華書局, 1997, p. 169. 老子·四十二章：“萬物中皆有元氣，得以和柔。”

성실함이 적고, 女色에 지나치게 빠진 것이다. 여색을 즐길을 색욕이라 하며, 함부로 쓰는 것을 소모시킨다고 한다. 여색을 즐길이 절도가 없으면 精이 고갈된다. 함부로 쓰면서 그치지 않으면 眞氣가 耗散된다. 이런 까닭으로 성인은 精을 아껴서 신중히 베풀어 髓가 가득차고 뼈이 굳세게 되었다.

『老子』에 이르기를, “그 뜻을 약하게 하고, 그 골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河上公은 말하기를, “욕심이 있으면 몸을 망치게 된다.”라고 하였고, 「曲禮」에서는 “욕망을 방증시켜서는 안된다.”라고 하였다.

(『新校正』에서, “『甲乙經』을 살펴보면, ‘耗’는 ‘好’字로 되어 있다⁹⁾. 가벼이 쓰고 욕심을 내버려두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按】

위의 인용은 『老子』 3장의 내용이다. 그런데 河上公의 주석은 1장 “兩者同出而異名”에 대한 주¹⁰⁾이다. “弱其志, 強其骨”에 대한 주석에서 河上公은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겸양하여 권력에 처하지 않으며, 精氣를 아끼고 베풀기를 귀중히 여기면 골수가 가득하고 뼈가 굳건해 질 것이다.”¹¹⁾라고 주석하였는데, 이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에 반해 王冰은 『黃帝內經素問』의 원문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河上公章句 1장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河上公章句의 해당 부분의 주석이 더 구체적임에도 불구하고 인용하였음을 보면 인용의 의도를 알 수 있다. 한편 당시 왕빙이 보았던 주석의 편제가 제대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老子』에서는 욕망을 추구하지 말고 자신의 뜻을 약하게 하여, 자신의 몸을 굳건하게 할 것을 추천한다. 억지로 무엇을 하려는 자세를 바꾸어 인위적이거

나 작위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 무위의 자세를 통해 몸이 강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3) 不知持滿, 不時御神.

가득 참을 유지할 줄 모르고, 때에 맞지 않게 神을 부린다.

【王冰注】

『老子』曰：持而盈之，不如其已。(9장)

言愛精保神，如持盈滿之器，不慎而動，則傾竭天真。

『真誥』曰：常不能慎事，自致百疴。豈可怨咎於神明乎。此之謂也。

(『新校正』云：按別本時作解。)

『老子』에 이르기를, “지니고서도 채우려 하는 것은 그것을 그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이는 精氣를 아끼고 神을 보전하기를 마치 가득 찬 그릇을 잡듯이 조심스레 하여야 하니, 신중하게 삼가지 않고 움직인다면 天真을 기울여 고갈시키게 된다는 말이다. 『真誥』¹²⁾에 이르기를, “늘 일을 삼가서 신중히 할 수 없으면, 절로 온갖 질병을 초래하게 된다. 어찌 신명을 원망하며 탓할 수 있겠는가?”¹³⁾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新校正』에서, “다른 판본에는 ‘時’는 ‘解’字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按】

원래 노자의 본 뜻은 자신이 어떤 것을 지니고서도 가득 채우려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그만 둬만 못하다는 일종의 과욕에 대한 경계인데, 왕빙은 이에 대해서 가득 찬 그릇을 운반하듯 조심해서 天真을 보전

9) 현재 甲乙經에는 다시 ‘耗’字로 되어 있다.

10) 河上公. 老子道德經河上公章句. 北京. 中華書局. 1997. p.2. 5. 體道第一에서 有欲과 無欲을 대비하여 이 둘이 같이 나왔지만 이름은 다르다는 데 대한 원문의 주석에서, 욕심이 없는 자는 오래 보존될 것이요, 욕심이 있는 자는 몸을 망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11) 河上公. 老子道德經河上公章句. 北京. 中華書局. 1997. p. 11. “和柔謙讓，不處權也。愛精重施，精滿骨堅.”

12) 真誥：梁代 陶弘景 撰. 7편 20권. 도홍경(陶弘景. 456-536)은 당시까지 도교 철학을 집대성한 眞誥에서 불교 윤회설의 길은 영향 아래 仙, 鬼, 人의 순환적 세계관을 만들어낸다. 이에 의하면 鬼 중에서도 선행을 쌓은 자는 人이 되고, 人으로써 훌륭한 일을 거듭하면 천상을 노니는 仙으로 승격하며, 반대로 추락도 일어난다.(http://www.naver.com)

13) 電子版 四庫全書(CD-ROM).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0. 원문 내용을 줄여 인용하였다. 眞誥卷七甄命授第三：“學道者常不能慎事，尙自致百疴，歸咎於神靈，當風臥濕反責他，於失復皆癡人也。安可以告玄妙哉”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內經』의 원문에서 말한 것을 생각할 때 본 구절은 노자의 인용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金善鎬는 ‘持而盈之’에 대해 ‘지속하고 채우는 것’이라고 했으나¹⁴⁾, 노자 원래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가지고 있는 것(그릇, 욕망, 형체 등)을 지속적으로 채워 나아갈 때 엎어버릴 수 있다는 ‘覆’에 대한 경계로 보아야 할 것 같다.

(4) 務快其心, 逆於生樂

그 마음을 만족스럽게 하는 데 힘써서, 삶의 즐거움을 거스른다.

【王永注】

快於心欲之用, 則逆養生之樂矣.

『老子』曰: 甚愛必大費. 此之類與. (44장)

夫甚愛而不能救, 議道而以爲未然者, 伐生之大患也.

마음의 욕망이 쏠리는 곳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養生의 즐거움을 거스르게 된다.

『老子』에 이르기를, “지나치게 심히 아끼면 반드시 크게 소모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런 종류일 것이다.

지나치게 아끼면 구제할 수 없으니, 도를 논의하면서 그러지(지나치게 아끼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경우는, 삶을 해치는 큰 근심거리이다.

【按】

생물 그르치게 되는 것은 욕망의 추구를 지나치게 함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어렵고 힘든 삶을 구제하거나, 혹 삶의 즐거움을 구하려고 하면 욕망의 추구를 절제할 줄 아는 자제력이 있어야 하는데, 욕망의 절제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삶을 해치는 근심거리가 된다는 것이다. 왕빙은 이 점에 착안하여, 마음이 가는 대로, 쏠리는대로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만 한다면 삶의 즐거움을 잃게 된다고 하였는데, 사물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아낀다면 삶을 해치는 빌미가 된다고 보았다. (3)에서 살펴 본 “不知持滿, 不時御神.”이 축적되어 심화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河上公注에서는 “지나치게 여색을 좋아하면 정신을 소비하게 되고, 지나치게 재물을 아끼게 되면禍를 만나게 된다. 아끼는 것이 적으면 잃는 것이 많게 되므로, ‘크게 소모한다’고 한 것이다.”¹⁵⁾라고 하였다.

사실 노자는 생리적인 순수한 본능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마음의 지각작용에 의한 의식적인 욕망의 추구는 스스로의 몸을 해침과 동시에, 남을 위협에 빠뜨리고 해칠 수 있는 원인으로 본 것이다. 마음의 지각작용을 제거하고, 생리적 본능의 자연적 생활에 맡기는 것을 노자는 “專氣致柔” 즉 자신의 기를 오로지하고 부드러움에 이른다라고 하였다¹⁶⁾.

(5) 起居無節, 故半百而衰也.

기거함에 절도가 없기 때문에 선 살에도 노쇠하는 것이다.

【王永注】

亦耗散而致是也. 夫道者, 不可斯須離, 離於道則壽不能終盡於天年矣.

『老子』曰: 物壯則老, 謂之之道, 不道早亡. 此之謂離道也. (30장)

또한 精氣가 소모되고 흩어져서 이렇게 된 것이다. 道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 없으니, 도에서 떨어져 나가면 하늘이 부여한 수명을 다하여 마치지 못할 것이다.

『老子』에 이르기를, “사물이 장성하면 노쇠하니, 이것은 도가 아니라고 한다. 도가 아니라면 일찍 쇠망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이것을 도를 떠남(離道)이

15) 尹暢烈, 李南九, 金善鎬. 黃帝內經素問王冰注 上. 大田. 周珉出版社. 2003. p. 175. 立戒第四十四. “甚愛色, 費精神, 甚愛材, 遇禍患. 所愛者少, 所費者多, 故言大費.”

16) 中國人性論史(徐復觀 著, 劉日煥 譯. 서울. 乙酉文化社. 1996. p. 73.)에서는 순수 생리의 꾸밈없는 태도를 노자는 嬰兒, 赤子 혹은 愚人 등에 비유한다고 보았다. 의식적인 心의 지각작용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14) 尹暢烈, 李南九, 金善鎬. 黃帝內經素問王冰注 上. 大田. 周珉出版社. 2003. p. 7.

라고 하는 것이다.

【按】

정기가 소모되고 흠어지는 계기를 생활의 무질제로 본 것이다. 그런데, 『老子』에서는 전쟁에서 지나치게 강성함을 추구하는 것은 시급한 구제의 역할을 다하는 것만 못한 것처럼, 도에 맞게 생활하지 못하면 노쇠하게 됨을 비유하였다. 그것은 王弼이 말한 것처럼, 굳센 무력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회오리바람은 아침이 끝날 때까지 오래 불지 못하고, 소낙비는 종일토록 내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갑자기 발흥하는 것은 반드시 도에 맞지 않아 일찍 그치게 된다¹⁷⁾. 사물은 전성기를 지나면 쇠퇴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왕빙이 『노자』를 인용하여 『소문』의 내용을 인용하려 한 것은, 사물이 장성한 그 자체가 노쇠의 이유가 아니라, 장성할 때 생활의 질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쇠한다고 본 것이다. 이는 앞의 (3), (4)절에서 무욕의 추구를 내세운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6) 夫上古聖人之教下也, 皆謂之虛邪賊風, 避之有時, 恬恬虛無, 眞氣從之. 精神內守, 病安從來.

是以志閑而少欲, 心安而不懼, 形勞而不倦. 氣從以順. 各從其欲, 皆得所願¹⁸⁾.

상고시대에 성인이 아래 사람을 교화함에 모두 이르기, “虛邪와 賊風을 피함에 때가 있어야 하며, 편안하고 맑고 비어 있어 잡념이 없으면 眞氣가 이를 따른다. 精神이 안에서 지켜지니 병이 어디에서 오겠는가?”라고 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뜻은 한가롭고 욕심이 적어지며, 마음이 편안하고 두려움이 없어서, 형체가 수고로와도 피로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氣가 이에 따라서 순조롭게 된다. 각자가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서 모

두 원하는 바를 얻는다.

【王冰注】

志不貪故所欲皆順, 心易足故所願必從, 以不異求, 故無難得也.

『老子』曰: 知足不辱, 知止不殆, 可以長久. (44장)

탐내는 뜻이 없으므로 하고자 하는 바가 모두 순조롭게 되고, 마음이 쉽게 만족되므로 원하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로써 기이한 것을 구하지 않으므로 얻기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이다.

『老子』에 이르기를,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아니하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아니할 것이니, 長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按】

부질없는 욕망을 절제함으로써 마음의 평정을 얻고 기운이 조화되어 장구한 수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삶과 죽음을 동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아서 齊物을 그 주제로 삼는 『莊子』에서와는 달리 『老子』에서는 어리고 부드럽고 연약한 것, 어리고 오래 가는 것을 가치있는 것으로 여긴다. 강하고 뻗뻗하면 지속할 수 없는 것이다. 부드럽고 연약할 수 있는 밀바탕은 스스로 만족하여 그칠 곳을 아는 것이다.

王冰은 사람이 허함을 틈타서 ‘虛邪’가 침입하고 中和를 해치는 賊風이 침입하는데, 그 발단은 욕심이 가는데로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는 내부의 욕망이 외부의 어지러움으로 연결되어 수명을 해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내부에서 욕망의 틀이 작용을 멈추고, 외부에서 어지러움이 고요해지면 마음이 편안해 지는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마음의 작용을 매우 강조한 것이다.

(7) 高下不相慕, 其民故曰朴.

위아래의 사람들이 서로 부러워하지 않으므로, 그 백성들을 소박하다고 한다.

【王冰注】

至無求也, 是所謂心足也.

『老子』曰: 禍莫大於不知足, 咎莫大於欲得, 故知

17) 老子註(王弼, 臺北, 藝文印書館, 1976, p. 63.): “壯武力暴興, 喻以兵強於天下者也. 飄風不終朝, 驟雨不終日, 故暴興必不道早已也.”

18) 본 (6)절은 老子註가 인용된 “氣從以順. 各從其欲, 皆得所願.”의 구절만으로는 이해가 어렵다. 다른 구절도 마찬가지로 지만, 여기서는 앞 구절의 맥락을 좀 더 자세히 살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단락의 시작에서 해당 부분까지의 黃帝內經素問 원문을 아울러 나열하였다.

足之足，常足矣。(46장)

蓋非謂物足者爲知足，心足者乃爲知足矣。不恣於欲，是則朴同。

故聖人云：我無欲而民自朴。(57장)

(新校正云：按別本云曰作日)

지극히 구함이 없으니, 이것이 이른 바 마음이 만족스럽다는 것이다.

『老子』에 이르기를, “禍는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허물은 얻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만족스러움이 만족됨을 안다면 항상 족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개 재물이 충족된 것이 만족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족하여야 만족할 줄 아는 것이다. 욕망을 방자하게 하지 않으면, 이는 소박함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이르기를, “내가 욕심이 없으면 백성들이 저절로 소박해진다.”라고 하였다.

(新校正에서, “다른 판본을 살펴보면 ‘曰’이 ‘日’字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按】

상하의 계층질서에서 자신의 위치에 놓인 분수에 만족하여, 처한 위치에 순응할 수 있는 것이 재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스스로의 위치에 만족할 수 없다면 그에 따른 욕망은 스스로를 해치게 되는 기전으로 작용한다.

본 내용은 하층민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있지만, 당시 春秋戰國時代라는 배경에서 볼 때 지도층의 의식에 호소하여, 백성들에 대해 근심어린 자애로움¹⁹⁾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지도층의 욕망과 야욕은 스스로의 파멸 그 이상으로 하층민의 희생과 재앙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다시 전체 국가의 재앙이 된다. 王冰도 이 점에 착안하였기 때문에 소박함

을 마음이 만족됨에서 찾았던 것이다.

부가 주석으로 인용한 57장²⁰⁾의 내용은 인위적 作爲에 의한 의식적 창조와 결과, 그와 맞먹는 재앙이 늘어만가는 현실을 비판하고, 無爲의 추구를 호소하고 있다. 이는 당시 핍박받던 하층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암울한 현실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수동적이 되어야하는 처지를 보여준다. 王冰은 결국 사물에 대한 만족보다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여 소박함을 회복할 것을 제시한 것이다.

(8) 是以嗜欲不能勞其目，淫邪不能惑其心。

이러한 까닭에 기호와 욕망이 그의 눈을 수고롭게 하지 못하고, 어지럽게 흘러 넘치는 邪氣가 그의 마음을 미혹하지 못한다.

【王冰注】

目不妄視，故嗜欲不能勞，心與玄同，故淫邪不能惑。

『老子』曰：不見可欲，使心不亂。(3장)

又曰：聖人爲腹，不爲目也。(12장)

눈으로는 함부로 보지 않으므로 기호와 욕망이 눈을 피로하게 하지 못하며, 마음이 현묘함과 같아서 어지럽게 흘러 넘쳐나는 사기가 마음을 미혹하지 못하는 것이다.

『老子』에 이르기를, “욕심낼 만한 것을 보지 말아서, 마음이 어지럽지 않도록 해야한다.”라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성인은 배를 위하고 눈을 위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按】

본 내용은 (7)에 이어지는 구절이다. 서로 분수에 만족할 줄 알기 때문에 눈이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마음이 사기의 침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王冰은 이 태도에 대해 눈으로 함부로 사물을 보지 말아야 욕망이 눈을 피로하도록 자극하지 못하고, 마음을

19) 徐復觀 著，劉日煥 譯，中國人性論史，서울，乙酉文化社，1996. p. 44, 83. 徐復觀은 이를 憂患意識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백성들은 근심하고 걱정하는 태도로, 유가, 묵가, 도가 할 것 없이 殷周時代를 통틀어 나타나고 있다. 孔孟의 仁과 老子的 慈는 모두 이러한 의식의 심화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0) 河上公，老子道德經河上公章句，北京，中華書局，1997. pp. 220-225. 57장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以正治國，以奇用兵，以無事取天下，吾何以知其然哉，以此，天下多忌諱，而民彌貧，民多利器，國家滋昏，人多伎巧，奇物滋起，法令滋彰，盜賊多有，故聖人云，我無爲而民自化，我好靜而民自正，我無事而民自富，我無欲而民自樸。”

그윽하고 넓게 가져 邪氣가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아야 함을 말하였다. 그리고보면 욕망을 자극하는 것은 그 시초가 눈, 즉 색이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마음의 동요를 가져와 邪氣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자신의 ‘몸’을 위하는 것은 내부에 기인하는 것이며, ‘눈’을 위하는 것은 결국 외물을 좇아 내달리는 것이다. 이는 『老子』 12장 앞부분에서 五色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고 한 것²¹⁾과 통한다.

(9) 舉不欲觀於俗.

거동함에 세속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王氷注】

聖人舉事行止，雖常在時俗之間，然其見爲，則與時俗有異爾。何者？貴法道之清靜也。

『老子』曰：我獨異於人，而貴求食於母。母亦喻道也。(20장)

성인의 거동[舉事]과 행동거지가 비록 항상 당시 세속 사이에 있지만, 그가 (의식을 가지고 들여다) 보는 것은 당시 세속과는 다른 것이다. 어째서인가? 맑고 고요히 道를 본받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老子』에 이르기를, “나 홀로 다른 사람과는 달라서 어머니께 먹여지기를 구함을 귀히 여긴다.”라고 하였는데, 어머니란 역시 道를 비유한 것이다.

【按】

비록 세속에 머물러 살아가지만,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내면의 알찬 것을 추구하는 자세, 바로 맑은 道를 추구하는 것을 호소한다. 길러주는 어머니라고 비유한 것은 “이름이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이다”²²⁾의 어머니이다. 형체를 가지는 것은 온갖 것들을 낳고 길러

주는 것이다. 따라서 道에 따라 살아감을 추구하는 자세를 말했다. 왕빙은 결국 세속 사람들과 달리 天真을 보전하면서 養生의 道를 따를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상 1편에서 왕빙이 『老子』를 인용한 아홉 구절(『老子』 해당 인용부분은 11장에 이른다)은 전체적으로 욕망을 절제하고, 내면에 담긴 道를 추구하여 養生을 추구할 것을 말하였다. 왕빙이 『黃帝內經素問』을 재편집하면서 본 「上古天真論」을 앞에 둔 것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天真’ 바로 ‘道’를 추구하는 道家적 사상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篇別로 재편집에 따른 목차의 변동을 살펴보면 왕빙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2. 「四氣調神大論 第二」

(10) 天氣，清淨光明者也。藏德不止。故不下也。

天氣는 청정하고 광명한 것이다. 德을 가지고서 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다.

【王氷注】

四時成序，七曜周行，天不形言，是藏德也。德隱則應用不屈，故不下也。

『老子』曰：上德不德，是以有德也。(38장)

言天至尊高，德猶見隱也，況全生之道，而不順天乎。

四時가 순서를 이루고 한 주를 이루는 七曜²³⁾가 두루 주행하는데도 하늘이 형언하지 않으니 이것은 德을 지닌 것이다. 덕이 숨겨지면 응용됨이 굽히지

21) 河上公. 老子道德經河上公章句. 北京. 中華書局. 1997. p. 45-46. 老子. 12장. : “五色令人目盲, 五音令人耳聾, 五味令人口爽, 馳騁田獵令人心發狂, 難得之貨令人行妨, 是以聖人爲腹不爲目, 故去彼取此.” 여기서는 지나친 외물의 추구가 사람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이성을 잃게 하므로 자신의 ‘몸’을 돌볼 것을 말한다.
22) 河上公. 老子道德經河上公章句. 北京. 中華書局. 1997. p. 2. 老子 1장. “有名, 萬物之母” 형체를 가지게 되는 것은 만물을 낳게 되는 바탕이 된다고 보는 으로, “有, 名萬物之母”로 句讀하기도 한다.

23) 七曜: 日·月·火·水·木·金·土의 7요일을 말한다. 1주일을 7일로 정하게 된 동기는 음력 한 달을 4등분한 데서 온 듯하다. BC 7세기경에 아시아에서는 7일 간격으로 매월 7, 14, 21, 28일에 휴식을 취하였다 하며, 서양에서 7요가 정식으로 채택된 것은 서기 325년이다. 인도에서는 5세기경에 서방으로부터 들어왔고, 중국에서는 인도의 불교와 천문학을 통하여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718년 唐나라에서 번역된 九執曆에는 매월 7요가 배당되어 있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149601) 따라서 王氷이 주석을 가하던 시기에는 七曜가 어느 정도 보편화 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않으므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다.

『老子』에 이르기를, “최상의 덕은 스스로 덕으로 여기지 않으므로²⁴⁾, 덕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늘은 지극히 존귀하고 높은데도 덕이 오히려 숨겨지는데, 하물며 삶을 온전히하는 道가 하늘을 따르지 않겠는가라고 한 것이다.

【按】

道란 총체적 원리, 이치라고 할 수 있겠고, 德이란 각개 존재의 속성이 깃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性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다. 그런데, 하늘은 이런 존재의 속성, 형체가 가지는 특징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과 자연운행을 관련시켰다. 하늘, 즉 자연은 맑게 빛나는 것이지만, 스스로의 속성을 내세우지 않는 겸양의 덕을 나타내고 있다. 왕빙은 이렇게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자세, 또 四時의 순서를 따르는 자세가 바로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이며 生을 온전히 하는 道로 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自他的 구분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커다란 德을 가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11) 故陰陽四時者, 萬物之終始也, 死生之本也. 逆之則災害生, 從之則苛疾不起, 是謂得道.

道者, 聖人行之, 愚者佩之.

그러므로 陰陽四時は 만물의 처음과 끝이며, 생사의 근본이다. 이를 어기면 재해가 생기고, 이를 따르면 가혹한 질병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이를 일러 道를 얻었다고 한다.

道는 것은 성인은 이를 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를 거스르는 것이다.

【王氷注】

聖人心合於道, 故勤而行之. 愚者性守於迷, 故佩服而已.

『老子』曰：道者同於道, 德者同於德, 失者同於失. 同於道者道亦得之, 同於德者德亦得之, 同於失者失亦

24) 金吞虛. 道德經 第二卷. 서울. 教林. 1983. p. 10. ‘만물과 함께 덕이 아님이 없으므로 “不德”이라고 했다’고 하였다.

得之. (23장)25)

愚者未同於道德, 則可謂失道者也.

성인의 마음은 道와 합치되므로 부지런히 이를 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성품이 미혹된 것을 지키려 하므로, 차고 다닐 뿐이다²⁶⁾.

『老子』에 이르기를, “道에 종사하여 道를 좋아하는 사람은 道와 같아지며, 德을 좋아하는 사람은 德과 같아지며, 이러한 道와 德이 없음에 종사하면 잃음과 같아진다. 道와 같아지는 사람은 道 역시 그를 얻게 되며, 德과 같아지는 사람은 德 역시 그를 얻게 되고, 잃음과 같아지는 사람은 잃음 역시 그를 얻게 된다.”라고 하였는데,

어리석은 이는 道, 德과 같아지지 못하니 道를 잃은 사람이라고 할 만하다.

【按】

吞虛는 道에 종사하면, 道德失이 可不可가 없이 동일한 관점에서 파악된다고 하였다.²⁷⁾ 즉, 道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道와도 하나가 되고 德과도 하나가 되며, 잃음(失道, 失德의 상황)과도 하나가 되어 그대로 道를 따라 살아갈 뿐이라고 본 것이다. 道에 종사하는 사람은, 道가 있는 사람과 함께 거처하면 그 사람의 道와 같아지고, 德이 있는 사람과 거처하면 그의 德과 같아지며, 失이 있는 사람과 거처하면 그의 失과 같아지는 것이다. 『內經』 원문에서는 陰陽四時에 대해 실제로 그를 따라 행하는 성인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형식적인데 얽매어, 혹은 자신의 방식만을 고수하여 그런 원리를 실제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이는 養生에 관한 결론으로서 王氷이 제시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어떻게 道에 따라 살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陰陽의 원리와 四時의 養生원칙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제

25) 河上公. 老子道德經河上公章句. 北京. 中華書局. 1997. p. 95. 老子的 인용원문에 생략된 부분이 있다. 뒷 구절의 “……亦得之”는 모두 “……亦樂得之”로 되어 있다.

26) 왕빙은 ‘佩’를 ‘몸에 지니고 다닐 뿐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였는데, ‘背’의 뜻이 있으므로 원문에서 ‘거스른다’고 해석하였다.

27) 金吞虛. 道德經 第二卷. 서울. 教林. 1983. pp. 309-310.

시한 것이다. 그런데, 王冰은 陰陽四時를 따르는 자세를 “부지런히 행한다-勤而行之”라고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道家의 무위에 대해, 더 큰 틀에서 陰陽四時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을 권한 것으로, 이러한 자세가 老莊思想에서 나아가 현실에서 天地로 대별되는 자연의 이치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따를 것을 제시한 黃老學의 영향으로 보인다. 『淮南子』를 위주로 한 漢代 초기의 황로학 계통 문헌에서는 소극적이고 정태적인 무위를 단호히 거부한다²⁸⁾. 이러한 黃老學의 시대배경에서 도가사상을 의학에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²⁹⁾, 왕빙은 이를 직시한 것이다.

3. 「陰陽應象大論 第五」

(12) 黃帝曰：陰陽者，天地之道也。
黃帝가 말하였다. “陰陽은 天地의 道이다.”

【王冰注】
謂變化生成之道也。

『老子』曰：萬物負陰而抱陽，沖氣以爲和。(42장)

『易繫辭』曰：一陰一陽之謂道。此之謂也。

변화하고 생성하는 道를 말한다.

『老子』에 이르기를, “만물은 陰을 등지고 陽을 안아서, 기가 부딪혀 조화로우음을 이룬다.”라고 하였다.

『易繫辭』에 이르기를, “한 번 陰적인 작용을 하고, 한 번 陽적인 작용을 하는 것을 道라고 한다.”라고 하였는데³⁰⁾,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按】

『老子』 인용문은 앞서 (1)절에서 나온 구절이다.

王冰은 만물을 운행하고, 변화시키며 생성하는 원리를 道라고 본다. 아울러, 이는 陰陽 두 기운의 작용으로 분석된다. 陰陽이 뒤섞이고 교류함으로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老子』 42장의 주제이며, 동양사상의 주제이기도 하다. 한편 이를 통해 『老子』에서는 우주론적인 생성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內經』에서도 그 생성원리는 음양의 작용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4. 「靈蘭秘典論 第八」

(13) 恍惚之數，生於毫釐。

있는 듯 없는 듯한 수가 형체를 가지는 毫釐의 수를 낳는다.

【王冰注】

恍惚者，謂似有似無也，忽亦數也。似無似有而毫釐之數生其中。

『老子』曰：恍惚惚惚，其中有物³¹⁾。此之謂也。(21장)

『筭書』曰：似有似無爲忽。

恍惚³²⁾이란 있는 듯 없는 듯함을 말하니,忽도 또한 수이다. 없는 듯 있는 듯하지만, 형체가 드러나지 않는 毫釐의 수가 그 가운데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老子』에 이르기를, “황홀한 그 가운데 만물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筭書』에 이르기를, “있는 듯 없는 듯함이忽이다”라고 하였다.

【按】

여기서 인용된 부분은 단지 황홀에 대한 주석이라고 볼 수도 있고, 有無의 경계에서 陰陽 운동의 끊임 없는 축적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형체의 경계

28) 이석명, 회남자한대 지식의 집대성. 파주. 강남실. 2004. p. 148.

29) 이석명, 회남자한대 지식의 집대성. 파주. 강남실. 2004. p. 169. 戰國末에서 秦, 漢初에 이르는 기간에 제자백가의 사상들이 상호 흡수되는 경향이 두드러져 荀子, 韓非子, 黃帝四經, 呂氏春秋 등의 결과물이 나왔고, 일부가 黃老道家, 黃老學을 형성하였는데, 이들은 도가사상을 중심으로 유가, 법가, 음양가 등 여러 사상을 종합하였다. 黃帝內經은 이러한 黃老學의 우주관, 인간관 등을 배경으로 한다.

30) 周易. 繫辭上傳. 5장. 소장 한글과일 검색.

31) 河上公. 老子道德經河上公章句. 北京. 中華書局. 1997. p. 86. 老子 원문에는 “恍惚惚兮，其中有物”로 되어 있다.

32) 山田業廣. 素問次注集疏 上.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 243. 劉君廉夫는 孫子筭經에 “누에가 실을 토해내는 것이忽이며, 10忽이 1絲, 10絲가 1毫, 10毫가 1釐”라고 하였다 고 했다.

에서 있는 恍惚, 형체의 상징이 드러나는 毫釐³³⁾, 『內經』원문에 이어 나오는 “毫釐之數, 起於度量, 千之萬之, 可以益大, 推之大之, 其形乃制”라고 한 내용으로 볼 때 미미한 어떤 작용이 쌓이고 쌓여서 형체를 이루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 그 작용은 바로 陰陽五行의 작용이다.

5. 「三部九候論 第二十」

(14) 帝曰：以候奈何。岐伯曰：必先度其形之肥瘦，以調其氣之虛實。實則寫之，虛則補之。

黃帝가 말하였다. “이를 살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반드시 먼저 그 형체의 肥瘦를 헤아려서 그 기의 虛實을 조절해야 합니다. 實하면 瀉하고, 虛하면 補하여야 합니다.”

【王冰注】

度，謂量也。實寫虛補，此所謂順天之道也。

『老子』曰：天之道，損有餘補不足也。(77장)

‘度’은 헤아림을 이른다. 실하면 사하고 허하면 보하는 것, 이것이 이른바 하늘의 도를 따르는 것이다.

『老子』에 이르기를, “하늘의 도는 남음이 있는 것을 덜어주고, 부족한 것을 보태 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按】

『內經』원문 앞 부분에서는 三部九候의 각 부위를 제시하여 사람을 天地人 三才思想에 근거해서 上中下로 나누어 관찰할 것을 제시하고 五臟의 기운이 망가지면 안색이 윤택을 잃게 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살필 때 형체의 肥瘦를 먼저 헤아려야 하며, 이에 따라 기의 虛實을 조절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老子』의 인용은 사실보허를 보충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 같다. 왕빙은 “實寫虛補”가 하늘의 도리를 따르는 것이라 하였는데, 치료원리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6. 「六微旨大論 第六十八」

(15) 故曰：無形無患，此之謂也。

그러므로 말하기를, 형체가 없으면 근심거리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王冰注】

夫喜於逢，悅於色，畏於難，懼於禍，外惡風寒暑濕，內繁飢飽愛欲，皆以形無所隱，故常嬰患累於人間也。若使想慕滋蔓，嗜慾無厭，外附權門，內豐情僞，則動以牢網，坐招播炳，欲思釋縛，其可得乎！是以身為患階爾。

『老子』曰：吾所以有大患者，為吾有身，及吾無身，吾有何患，此之謂也。(13장)

夫身形與太虛，釋然消散，復未知生化之氣，為有而聚耶？為無而滅乎？

뜻하는 바가 이루어짐에 기뻐하고 여색을 즐거워하며,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재앙을 근심하며, 밖으로는 風寒暑濕을 싫어하고 안으로 齟齬와 배부름, 사랑함과 욕망 등이 많은 것은 모두 형체는 숨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항상 근심에 사로잡히고 사람 사이에 얽매는 것이다. 만일 생각하고 사모함이 많고 기호와 욕망을 만족하지 못하여, 밖으로는 권세 있는 집에 빌붙고 안으로는 거짓이 넘친다면, 옥에 갇히거나 법망에 걸려서 앉아서 몸을 굽고 지지는 형벌을 초래하는 것이다. 속박을 풀어버리려 생각한들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하므로, 몸이 환난의 빌미가 되는 것이다.

『老子』에 이르기를, “내가 커다란 근심거리가 있는 까닭은 내가 몸이 있기 때문이니, 내가 몸이 없다면 내가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이르는 것이다.

몸의 형체가 太虛³⁴⁾와 함께 풀어지듯 녹아 흩어진다면, 다시 生化의 기운이 있어서 모인 것인지, 없어서 소멸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33) 山田業廣. 素問次注集疏 上.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 243. 張介賓은 “恍惚者，無形之始，毫釐者，有象之初”라 하였다.

34) 太虛：‘공간’, ‘대기 중’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按】

運氣篇이지만 왕빙의 주석은 『老子』 13장의 내용을 그대로 풀이하는 듯한 생각이 든다. 사람이 형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필연적으로 몸의 근심거리, 즉 병에 걸리게 됨을 설명한다. 그 과정은 氣의 升降出入에 의해서 일정함을 잃으면 안되는데, 이런 天地自然의 기운의 순환을 어기면 기의 이상을 초래하고 몸은 병을 앓게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老子』에서도 생명이 가지는 한계를 인식했다고 보인다. 다만, 본 단락은 왕빙이 유일하게 運氣篇에서 노자를 인용하여 주석한 부분이다. 運氣篇의 형성 과정과 관련하여 좀 더 깊은 탐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 「徵四失論 第七十八」

(16) 受師不卒, 妄作雜術, 謬言爲道, 更名自功, 妄用砭石, 後遺身咎, 此治之二失也.

스승에게서 전수받는 것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잡된 기술을 쓴다. 그릇된 말을 道라고 하여 다시 이름짓는 것으로 자신의 공으로 삼으며, 돌침을 함부로 써서 그 뒤에 몸에 허물을 남기니, 이것이 치료에서 두 번째³⁵⁾ 그릇됨이다.

【王冰注】

不終師術, 惟妄是爲, 易古變常, 自功循己, 遺身之咎, 不亦宜乎! 故爲失二也.

『老子』曰: 无遺身殃, 是謂襲常. 盖嫌其妄也. (52장)

스승의 의술을 마치지 않고서 오직 망령된 짓만 하여, 옛 것과 常道를 변경시키고, 스스로 공이 있다고 여겨 자신의 의견만을 따르니, 몸에 허물을 남기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잘못된 둘째가 되는 것이다.

『老子』에 이르기를, “몸에 재앙을 남기지 않는 것

이것을 일러 ‘習常’(항상된 것을 따라 함)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 망령됨을 싫어하는 것이다.

【按】

첫 번째 치료의 과실로 陰陽의 순환 이치를 따르지 않는 것을 제시하였는데, 두 번째 잘못은 옛부터 이어져 오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내세워 결국 환자를 그르치도록 한 것이다. 이 부분은 임상에서의 어려운 점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여겨 王冰이 뒷 부분에 배치한 편인데, 여기서는 아집과 선입견 등을 버리고, 성실한 진료를 할 것, 또 그 바탕은 이어지는 의술을 제대로 계승할 것을 말한다.

8. 「解精微論 第八十一」

(17) 是以人有德也, 則氣和於目, 有亡, 憂知於色.

이러한 까닭으로 사람이 덕이 있으면 기운이 눈을 은화하게 하며, 잃음이 있으면 안색에서 근심을 알 수 있다.

【王冰注】

德者, 道之用, 人之生也.

『老子』曰: 道生之, 德畜之. (51장)

氣者, 生之主, 神之舍也. 天布德, 地化氣, 故人因之以生也. 氣和則神安, 神安則外鑒明矣. 氣不和則神不守, 神不守則外榮滅矣. 故曰人有德也, 氣和於目, 有亡也, 憂知於色也.

(新校正云: 按『太素』德作得.)

德은 道의 쓰임이며 사람의 사람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老子』에 이르기를, “道는 만물을 낳고 德은 만물을 기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氣는 生을 주관하고 神이 머무르는 곳이다. 하늘이 德을 퍼뜨리면 땅이 氣를 변화시키므로 이로 인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다. 氣가 조화되면 神이 편안해지고, 神이 편안하면 밖으로 밝게 비추게 될 것이다. 氣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神을 지키지 못하고, 神이 지켜지지 않으면 바깥으로 드러나는 영화가 감퇴

35)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558. 첫 번째 그릇됨에 대해서는 “診不知陰陽逆從之理. 此治之失也”라고 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德이 있으면, 눈에 氣가 조화를 이루고, 잃음이 있으면 안색에서 근심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新校正에서, “『太素』를 살펴보면 ‘德’은 ‘得’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按】

道는 총체적 원리이며, 이는 만물을 생성하여 낳는 원리가 된다. 德은 구체적 원리이며 만물을 기르게 된다. 이렇게 보면 『內經』에서 말한 德은 사물이 살아가는 원리의 구체적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드러나는 것, 볼 수 있는 것으로의 이행, 즉 얻어서 지니는 것이라고 본다. 왕빙은 이렇게 얻고 잃음에 따라 氣가 변화하며, 이는 神을 통해 드러나는데 기운이 조화를 이룰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고찰

王冰은 先師 張公의 秘本과 梁代 全元起의 『素問訓解』를 토대로 『黃帝內經素問』의 재편집을 진행하였다. 全元起的 『素問訓解』는 林億 등이 新校正에서 밝힌 것처럼, 그 권수가 고대 『素問』의 권수와 동일한 9권으로 되어 있고, 편별 순서는 알 수 없으나 편명과 제목을 신교정에서 밝혀 놓았는데, 왕빙본의 편명과 거의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³⁶⁾. 이를 살펴 보면 王冰이 『老子』를 인용한 편 가운데 현재 通行本の 「上古天真論 第一」, 「四氣調神大論 第二」, 「陰陽應象大論 第五」 등은 全元起本에서 모두 9권에 있었던 것으로 왕빙이 이를 재편집하면서 1, 2권으로 옮긴 것은, 그가 『黃帝內經』의 주제가 養生을 통해 形과 神이 모두 적절히 조화를 이루며 건강한 삶을 갖추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 외, 「靈蘭秘典論 第八」, 「三部九候論 第二十」은

全元起本에 3권에 있었으며, 「徵四失論第七十八」, 「解精微論 第八十一」은 全元起本 8권에 있어 원래 全元起本에서는 끝부분에 養生, 攝生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六微旨大論 第六十八」은 運氣篇이라 全元起本에서는 살펴볼 수 없고, 이상 『老子』가 인용된 편 가운데 앞의 세 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全元起本과는 篇名이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왕빙이 『黃帝內經』을 재편집 한 체제는 1-4편은 攝生과 養生에 관한 것이 주류며, 5-7편은 陰陽, 8-11편은 五臟六腑와 五臟에 귀류하는 外形에 대해 나온다. 15-30편은 거의 診斷에 관한 논의고, 31-49편은 外感內傷에 해당한다. 50-65편은 주로 經穴과 針法에 관한 것이며, 66-74편은 運氣, 75-81편은 실제 임상 어려운 점 등을 논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⁷⁾ 이런 편제를 통해 왕빙은 체계적인 의학이론을 구성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서 全元起本에 8, 9권에 있는 내용들을 앞으로 끌어 온 것은 攝生을 통해 養生의 道를 추구하고자 한 왕빙의 道家적 성향을 보여주는 핵심이다.

물론 이 외에도 王冰이 도가사상에 영향을 받아 『素問』을 주석한 부분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편수를 81편으로 『道德經』의 수에 맞춘 것이라든지, 道家思想을 선명하게 나타내는 「上古天真論」을 위주로 道家의 保精, 調神, 養氣, 順應四時陰陽 등의 양생, 예방의학사상을 나타내는 것 등이 그 일례들이다³⁸⁾. 구체적인 주석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老莊의 道家思想에서 이어지는 黃老學의 영향하에 형성된 『黃帝內經』에 비추어 볼 때, 魏晉玄學을 거치며 道家가 國敎이기까지 했었던 唐代에, 엄청난 시대적 변혁과 혼란을 겪은 왕빙이 道家의 커다란 영

36) 金重漢. 王冰에 대한 研究-王冰의 素問에 對한 註釋 및 篇第의 改編을 中心으로.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1980. pp. 8-11.에서 全元起本과 王冰本의 편차의 변동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여 놓았고, 근래 段逸山은 全元起本을 복원하면서 편별로 상세한 비교표를 작성하였다.(段逸山. 素問全元起本研究與輯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1. 附錄)

37) 朴贊國. 東醫學의 成立에 對한 研究. 大韓原典醫學學會誌. 1991. 5. p. 148. 한편, 편제의 큰 대강을 養生, 陰陽五行, 臟象, 治法, 脈法, 經脈, 疾病, 刺法, 運氣, 醫德 및 雜論 등의 순서로 재구성하였다고 보기도 한다.(金南一. 王冰 素問註釋의 易學理論 활용에 관한 연구.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1994. p. 9)

38) 張登本. 王冰次注素問的特點. 醫史文獻. 太原. 山西中醫學院報. 2006. 7(1). p. 11. 참조.

항하에서 『內經』의 재편집을 하게 된 것은 일련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하겠으며, 『黃帝內經』의 편제에서 養生을 주제로 끌어낸 것은 필연적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老子』, 『莊子』의 道家 경전들을 끌어와 『黃帝內經』의 주석을 가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老子』, 『莊子』가 인용된 부분이 앞 부분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점도 ‘養生’이라는 주제를 의도적으로 강조하려 한 노력이었다고 파악된다.

『老子』가 인용된 부분은 「上古天真論 第一」에 9곳에 11번 『老子』가 인용되었고, 「四氣調神大論 第二」에 2곳, 「陰陽應象大論 第五」, 「靈蘭秘典論 第八」, 「三部九候論 第二十」, 「六微旨大論 第六十八」, 「徵四失論第七十八」, 「解精微論 第八十一」에 각각 1곳 인용되었다. “形如神俱”라는 『內經』의 주제를 앞서 제시하고 조명하면서, 道家경전으로 간주되는 『老子』를 집중적으로 인용하여 근거를 확보한 것이다. 이를 분류해서 나누어 보면, 크게 우주론이나 생성론과 관련된 부분³⁹⁾, 욕망의 자제와 절제를 강조한 부분⁴⁰⁾, 마음의 만족과 ‘無爲’를 추구한 부분⁴¹⁾, 道를 추구한 부분⁴²⁾, 치료의 근거나 임상 자세를 보충하는 근거가 되는 부분⁴³⁾, 생명의 유한성을 말한 부분⁴⁴⁾ 등으로 나눌 수 있다.⁴⁵⁾

즉, 王冰은 『黃帝內經』의 주석에서 『老子』를 인용하면서 만물의 생성론과 우주론을 제시하고, 養生을 위해 욕망을 절제하고 만족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런

자세는 陰陽四時에 순응하는 無爲의 養生觀을 드러내는 것이며, 形과 神이合一이 되는 道를 추구하여 天真을 보전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결론

道家思想과 玄學의 영향을 받은 王빙의 思想을 살펴보는 일환으로, 王빙이 『黃帝內經素問』을 주석하는 과정에서 『黃帝內經』 원문 외에 가장 많이 인용한 『老子』의 인용문을 고찰한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黃帝內經素問』의 주석과정에서 王빙은 『內經』 원문 17군데에서 19회의 인용을 밝혔다. 이를 통해 王빙은 만물의 生成論과 宇宙論을 제시하고, 養生을 위해 욕망을 절제하고 만족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런 자세는 陰陽四時에 순응하여 道를 추구하고 天真을 보전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2. 王빙은 황제내경소문의 편재개편을 통해 王빙은 체계적인 의학이론을 구성하고자 하였는데, 素元起本에 8, 9권에 있는 내용들을 앞으로 끌어 온 부분에서, 攝生을 통해 養生의 道를 추구하고자 한 王빙의 道家적 색채를 느낄 수 있다.

3. 老莊의 道家思想에서 이어지는 黃老學의 영향하에 형성된 『黃帝內經』과, 魏晉玄學을 거친 唐代에 道家의 커다란 영향하에서 王빙이 『內經』의 재편집을 하게 된 것은 일련의 연속성을 가진다.

4. 王빙의 황제내경소문 주석과정에서 道家의 경전들을 끌어와 『黃帝內經』의 주석을 가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老子』가 인용된 부분이 앞 부분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점도 ‘養生’이라는 주제를 의식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39) (1), (12), (13), (17)절이 해당한다.
 40) (2), (3), (4), (5), (6), (8)절이 해당한다. 이 가운데 (3)절은 “覆”에 대한 경계를 통해 “天真”을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8)절에서는 五官의 자극을 경계했다.
 41) (7)절이 해당한다.
 42) (9), (10), (11)절이 해당한다. 특히 (10)절은 四時의 計을 따를 것을, (11)절은 陰陽四時를 따름으로써 盈동성, 缺극적 ‘無爲’를 강조했다.
 43) (14), (16)절이 해당한다.
 44) (15)절이 해당한다.
 45) 孫理軍, 張登本. 王冰養生思想的特點. 濟南. 山東中醫藥大學學報. 2005. 29(2). pp. 95-97. 참조. 孫理軍은 王빙의 양생사상을 ①天真을 받들어 기르는 守道觀, ②자연에 순응하는 清靜無爲의 양생관, ③形神一體의 양생관, ④정도를 지키며 화해하는 양생관, ⑤풍부하고 다양한 양생방법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참고문헌

<논문>

1. 張登本, 王冰次注素問的特點. 醫史文獻. 太原. 山西中醫學院報. 2006. 7(1).
2. 張登本, 孫理軍, 王冰其人其事. 醫史文獻. 太原. 山西中醫學院學報. 2005. 6(2).
3. 孫理軍, 張登本, 王冰養生思想的特點. 濟南. 山東中醫藥大學學報. 2005. 29(2).
4. 金南一, 王冰 素問註釋의 易學理論 활용에 관한 연구.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1994.
5. 朴贊國, 東醫學의 成立에 對한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1. 5.
6. 金重漢, 王冰에 對한 研究-王冰의 素問에 對한 註釋 및 篇第의 改編을 中心으로.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1980.

<단행본>

1. 이석명. 회남자한대 지식의 집대성. 파주. 강남실. 2004.
2. 山田業廣. 素問次注集疏 上下. 北京. 學苑出版社. 2004.
3. 廖育郡, 傅方, 鄭金生 著. 朴炫局 外 2人 共譯. 中國科學技術史-醫學篇. 서울. 一中社. 2003.
4. 尹暢烈, 李南九, 金善鎬. 黃帝內經素問王冰注 上中下. 大田. 周珉出版社. 2003.
5. 段逸山. 素問全元起本研究與輯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1.
6. 河上公. 老子道德經河上公章句. 北京. 中華書局. 1997.
7.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8. 徐復觀 著. 劉日煥 譯. 中國人性論史. 서울. 乙酉文化社. 1996.
9. 河上公. 老子道德經. 文淵閣 欽定四庫全書 166. 子部 道家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8.

10. 王弼. 老子道德經. 文淵閣 欽定四庫全書 166. 子部 道家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8.
11. 徐大椿. 道德經註. 文淵閣 欽定四庫全書 166. 子部 道家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8.
12. 金吞虛. 道德經 第一卷, 第二卷. 서울. 教林. 1983.
13. 王弼. 老子註. 臺北. 藝文印書館. 1976.
14. 王冰. 重光補注黃帝內經. 臺北. 國立中國醫藥研究所. 1959.

<기타매체>

1. 電子版 四庫全書[CD-ROM].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0.
2. <http://www.naver.com/>
3. <http://www.cnki.co.kr/>